

## 로마서 2장의 율법

N. T. 라이트\*

박형대 역\*\*

### 1. 서론<sup>1)</sup>

로마서 2장은 카드패의 조커이다. 바울 서신 중 가장 많이 논의된 서신인 로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판단해 볼 때 2장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탁월함이, 바울과 율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종종 다뤄지지 못했다. 열심 있는 주석가들은 3장 19-20절, 3장 21-31절 등을 둘러싸고 있는 흥미진진한 논의들을 다루고 싶어서 로마서 2장은 서둘러 지나쳐 버린다. 이는 마치 에딘버러로 가는 관광객들이 북 잉글랜드의 소중한 것들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북 잉글랜드를 대충 지나쳐버리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적어도 두 가지 있다. 간단한 논의와 몇 가지 제안을 위한 배경 설정을 위해 이 이유들을 고려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로마서 2장이 무시되는 첫째 이유는 로마서 전체 혹은 적어도 로마

---

\*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 교수, 신약학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신약학

1) 이 논문은 N. T. Wright, "The Law in Romans 2," James D. G. Dunn, ed., *Paul and the Mosaic Law*, WUNT 89 (Tübingen: Mohr-Siebeck, 1996), 131-150에 출판되고, 번역된 독일어 논문들과 함께 (Grand Rapids: Eerdmans, 2001), 131-150에 재판된 것으로, 저자와 Mohr-Siebeck의 허락을 받아 번역하고 출판한다.

서 1-8장에 흐르는 논지에 대한 강력한 의견 일치와 관계가 있다. 주석마다 다른 주석을 따라 개요를 잡아, 1-8장이 인간의 죄(1-3장),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적 구제책과 이신칭의(3-4장),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기독교인이 누리는 새 생명(5-8장)을 다룬다고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말하자면 구원의 서정(ordō salutis)을 따르고 설명한다고 간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구원의 서정 견지에서 로마서 2장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도, 칭의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 로마서 2장은 이상하리만큼 강한 의견 일치를 보여주는 문단(1:18-3:20)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이 문단이 전달하는 바는 기껏해야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2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틀기와 반전은 어쨌든 이 개요에 부합되어야 한다. 물론 이처럼 강한 의견 일치는 공통된 견해가 참이라고 볼만한 강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어떤 면에서 공통된 견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한다. 세부 사항을 보지 못하게 하는 ‘큰 그림’ 주해는 항상 위험하다.

로마서 2장이 무시된 둘째 이유는, 일치된 견해가 도전 받는 곳에서조차도 그 도전이 아직 이 장을 문맥적으로 산뜻하게 주해하는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악명 높게도 샌더스(Sanders)는 『바울 율법 유대인(Paul, the Law and the Jewish People)』에서 그 구절들이 바울 논거의 본격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선언했다. 다만 기독교인의 경미한 수정이 가해진 옛 회당 설교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샌더스가 많은 주석가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큰 소리로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신학적 서신의 두 번째 장을 괄호 안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여전히 충격으로 다가온다. 내 예감으로는 바울 연구에 가한 샌더스의 개혁은 사실 아직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좀 더 생각해보면 샌더스나 그를 비판하는 루터주의자들이 현재 짐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여지를 순화된 개신교 주해에 줄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바울과 율법에 관한 도식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로마서 2장을 통해 바울

저작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 질문뿐 아니라 로마서 자체의 주석에도 어떤 중국적인 해결책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특별한 논쟁점은 세 가지인데, 이는 바울이 2장에서 율법에 대해 말하는 세 단락과 부합한다. 나는 이 단락들을 역순으로 다루기를 제안하는데, 이는 ‘보다 분명한 부분에서 시작해서 보다 덜 명확한 부분 순으로 세워간다.’라고 하는 매우 좋은 방법론적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2장 25-29절의 의미, 특히 가리키는 대상과, 짧지만 치밀한 이 문단 내에서 율법이 하는 역할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2장 17-24절에 퍼부어지는 비판의 성격과 관계된다. 즉, 바울이 ‘유대인’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율법이 이 비판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가? 세 번째 질문은 2장 12-16절과 관계되는데 내 생각에는 가장 어려운 것으로 두 개의 하위 질문으로 나뉜다. 첫째, 2장 12-13절에 언급되는 칭의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둘째, 2장 14-15절에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방인들은 누구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그들 마음에 기록된” 율법과 함께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가?(네 번째 질문도 있지만, 이는 율법에 대한 질문과 그리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다. 곧, 2장 1-16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 질문들은 이것들이 평이한 것만큼이나 새롭지 않다. 나는 이따금 이것들에 관해 읽고 쓰면서 수년을 보냈다.<sup>2)</sup> 다음에서 나는 비록 얼마간의 중복이 불가피하겠지만,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다. 더욱이, 논의된 몇몇 반전과 비틀기가 언급되지 못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2장에 대해 종종 길게 저술한 동료들과 논쟁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주석서와 단행본으

2) 최근에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다룬 것은 N. T. Wright, “Romans and the Theology of Paul,” E. H. Lovering, ed., *SBL 1992 Seminar Paper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184-214를 참고하라. 바울 신학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의견은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Edinburgh/Minneapolis: T & T Clark and Fortress Press, 1991)를 참고하라.

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그것들을 여기에 인용하고 끌어들이기 만한 여지는 없다.

## 2. 끝맺음에서 시작하기: 2장 25-29절

로마서의 특색 중 하나는, 바울이 서신의 주어진 항목에서 말하고 있는 대상이 현대 독자들에게 결코 명확하지 않은 곳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물론 로마서 7장에서 악명 높지만 내 생각에는 로마서 2장 끝에서도 덜 하지 않다. 두 경우 모두, 구절들이 율법과 관계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칭되는 사람들을 알아차리기 힘든 이유가 율법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혼동에 있는 것 같다. 이 경우에 만일 우리가 언급되는 대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율법에 관해 상당히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두 질문은 분리될 수 없다.

이 문단에서는 두 범주의 사람들 사이의 대조가 계속 제기된다. 첫 범주는 의심할 여지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로 구성된다.

만일 네가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2:25)...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할 것이다...(2:27).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2:28).

단수(‘유대인’)는 수사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바울은 아마도 회심 전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말을 건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에게 부과하는 위법이 이 구절에서는 분명히 율법에 대한 ‘자랑’이나,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 지위나 ‘의’, 실제적인 그 밖의 어떤 것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부과하는 위법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물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비난이

상술된 바울 구절들의 더 넓은 문맥 안에서-그 중에서도 참으로 2장 17-24절(이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과 함께-정해져야 하지만, 적어도 이 구절에서는 그 문제가 명료하다. (몇몇 계속되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7장 7-25절처럼, ‘유대인’과 관계된 문제는 이 사람이 ‘율법을 위반한 자’(παράβάτης νόμου)라는 것이다.

‘유대인’ 정죄 이유에 대한 이해가, 주석적으로는 ‘유대인’과 대조되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진술에 의해 확증되고, 이러한 이해가 실제적으로는 바울 진술의 논리적 이유가 되는 것 같다.

만일 다음에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φυλάσση),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또한 본래(ἐκ φύσεως)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τελοῦσα) 너를 정죄할 것이다...(2:26-27).

오직 이면적(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이에 대한 칭찬이 사람에게서 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2:29).

분명히 2장 26-27절에 나오는 사람은-다시 한 번, 단수는 명백히 집합적으로 읽혀야 한다-이방인이다(2장 29절에서 바울은 범주를 넓히고 있고, 그의 ‘진정한 유대인’은 물론 유대인일 수도, 이방일 수도 있다. 2장 28-29절의 목적은 2장 26-27절의 진술을 수반하는 더 큰 요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므로 2장 28절에 ‘왜냐하면’(γάρ)이 있다.]. 질문은 ‘그가(할례와 관련된 질문이므로, ‘혹은 그녀가’를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 기독교인인가, 아닌가?’이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이행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

로마서 1-3장에 관한 옛 합의로 제안되는 견해는 이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이 장들에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류가 기술되는데, 바울이 왜 갑자기 기독교인에 대한 기술을 삽입하겠는가? 이 견해는 바울은 분명히, 만일 율법을 이행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된다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을 정죄할 거라고 암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이론에 있어서 논거의 유일한 요점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정말 정죄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지, 율법을 이행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그들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 대신, 여기서 바울이 어쨌든 본성의 빛에 의해 (즉, 기독교 신앙 없이) 어떤 면에서 ‘율법을 지킨’ 몇몇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순간적으로 상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곧바로 바울이 인류에 대한 그의 전형적인 냉혹한 견해로 되돌아가서 3장 9-20절에서 여하튼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다고 선포한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 부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견해에 따르면 사실 그 부류는 구성원이 없게 된다.

로마서에 대한 두 위대한 현대 주석가인 찰스 크랜필드(Charles Cranfield)와 Ernst Käsemann이 동의하는, 상대적으로 몇 안 되는 요점 중 하나는, 이러한 일련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인 이방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실, 나는 이 점이 로마서 2장에 관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모든 논쟁점들 중에 논증하기 가장 쉬운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 구절들에서 시작하는 이유이다. 많은 이런저런 논거들 중에서 다음의 것들을 나는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택했다.

## 2.1. 기독교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세 구절

2장 29절의 문체는 바울이 명백히 기독교인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다른 세 구절을 세세히 떠오르게 한다.

### 2.1.1.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ὡς καὶ ἐκατηργήθημεν ἀπὸ τοῦ νόμου ἀποθανόντες ἐν ᾧ κατειχόμεθα, ὥστε δουλεύειν ἡμᾶς ἐν καινότητι πνεύματος καὶ οὐ παλαιότητι γράμματος). 바울의 사고방식에서 영, 율법 조문의 대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과 육신 안에서의 삶이나 유대주의 안에서의 삶의 대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문맥이 어느 정도 다르다. 특히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불필요하다. 첫째로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이행한다는 관념이, 비록 8장 4-9절과 다른 곳에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아래를 보라), 7장 6절에는 없다. 오히려 결정적인 것은 율법 조문, 영 대조이다. 만일 바울이 자신의 용어를 극히 느슨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물론 이 점이 처음부터 배제될 수는 없지만, 방법론적으로는 바울이 동일한 서신 내에서 같은 단어들로 대체로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7장 6절만으로도 2장 29절의 이방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 2.1.2.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ὅς καὶ ἰκάνωσεν ἡμᾶς διακόνους καινῆς διαθήκης, οὐ γράμματος ἀλλὰ πνεύματος· τὸ γὰρ γράμμα ἀποκτείνει, τὸ δὲ πνεῦμα ζωοποιεῖ). 문단 전체의 문맥에서<sup>3)</sup> 바울의 의도하는 바는 의심할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율법 조문/영 대조가 한편으로 모세와

3) 이에 대해서는 N. T. Wrigh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9장을 보라.

유대 율법의 사역과, 다른 한편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 사이의 대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2.1.3.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ἡμεῖς γὰρ ἐσμεν ἡ περιτομή, οἱ πνεύματι θεοῦ(다른 독법: θεῶ) λατρεύοντες ... καὶ οὐκ ἐν σαρκὶ πεποιθότες...). 할례, 영,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고방식에서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일단의 개념들을 보게 된다. 이전처럼 여기서도 바울은 자신과 이방 개종자들이 포함된 기독교인들과,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으로서 ‘육체’ 안에 있는 이전의 자신을 대조시키고 있다. 비록 함축되어 있을 수 있지만, 로마서 2장 29절에서와 같이 ‘참’ 할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물론 문법적으로는 ‘할례’(ἡ περιτομή)가 첫 절의 주어이고, ‘우리’(ἡμεῖς)가 보어이다. 즉, “할례-그것은 우리이다!”이다.

이 평행구들은 로마서 2장 25-29절에서 문제 삼는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 그 자체로 매우 충분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바울은(고린도후서 본문에는 명시되고, 다른 데서는 강하게 함축된) 본질적으로 언약적인 언어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2.2. 성경과 성경 외의 유대 본문들

바울이 2장 25-29절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들을 통해, 명시적 주제가 언약 갱신인 성경과 성경 외의 유대 본문들이 생각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본문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겔 36:24-28; 비교, 11:19-20<sup>4)</sup>).

물론 에스겔은 ‘여러 민족으로부터’ 오는 이 사람들을, 포로 귀환하는 유대인들로 그려낸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에 확장된 의미를 부여하여, 이방인들 자체를 ‘여러 민족으로부터’ 오는 자들로 보고, 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정결케 된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반향이 들리든 말든, 이 구절을 마음에 둔 것만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우리가 다루는 로마서 본문 직전 절(2:24)에서, 위 본문의 이전 절 즉, 에스겔 36장 20절을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언급하기 때문이다.<sup>5)</sup> 비록 에스겔서의 ‘육신의 마음’과 바울의 ‘육신’ 제거가 피상적으로는 짝이 맞지 않지만, 나머지 주제들도 잘 들어맞는다. 새 마음, 새 영, 이어지는 법령과 조례,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그 ‘포로 귀환자들’, 즉, 새 언약 백성을 기술하고 있다는 인상에 보태진다.

4) 다른 참고문헌과 논의는 N. T. Wrigh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Volume I of Christians Origins and the Questions of God* (London/Minneapolis: SPCK and Fortress Press, 1992), 301(그리고 전체 장)에 있다.

5) 바울의 단어들은 엄밀하게는 이사야 52장 5절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문맥이 매우 유사하므로, 에스겔 본문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도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럽다.

### 2.3. 사소하지만 때때로 간과되는 요점

셋째는 사소하지만 때때로 간과되는 요점이다. 2장 26절에서 바울은 무할레가 할레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말한다. 물론 바울이 다른 구절, 예로 4장 3절 이하에서는 ‘여겨지는’을 칭의를 다룰 때 사용한다. 이 용어는 지위의 변화를 나타낸다. 수동태는 아마 신적 행위를 지시하는 것 같다. 물론 바울이 이 용어를 두 개의 전혀 다른 처리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를 같은 사건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수월하다. 여기에 기술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들이다.

### 2.4. ‘비기독인’ 논의의 토대

넷째 논거는 ‘비기독인’이라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가정, 즉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유일하게 관심 갖는 바는 모두가 죄인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가정을 손상시킨다. 물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게 바울이 실제로 주장하는 주요한 요점 중 하나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요점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바울 연구 분야에서 점점 인식되는 바는, 바울이 서신에 조만간 다룰 것들에 대한 힌트들, 혹은 이후에 발전시킬 주제들에 대한 제안들을 불쑥 던져 넣기를 잘한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는, 확실하게 은밀할 정도로 매우 간단히 9장 논거의 상당부분을 다음 장(1-9절에서 바울이 앞을 내다보고 쓰고 있다)에 제시한 것이다. 바울의 특별한 논거가, 우리가 그의 서신들을 통해 재구성할 수도 혹은 못할 수도 있는 신학적 틀을 따라 제시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교향곡 작곡가와 같이, 그는 주제의 일부를 충분한 서론 형식으로 미리 잘 진술할 수 있다. 이것이 이 구절에서 일어났다고 나는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2장 25-29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과 율법을 분명하게 ‘지키거나’ ‘이행하는’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의 대조를 주로 기술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이런 사람은 어쨌든 단순하게는 ‘유대인’과 ‘할례’라고 명명되는 ‘새 언약’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이 요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단어들에 ‘참’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상술하면서, 동시에 계속되는 필연적 논쟁으로 바울이 직함 자체를 간단히 바꿔버린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 범주(‘유대인’, ‘할례’)는 물론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내주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논거의 비평적 반전인 2장 25-27절의 요점은, 이제 매우 역설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무할례 상태로 있으면서도 (우선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해 볼 때) 유대 율법과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방인들이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바울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향해 갈 때, 이제 잠시 동안 마음 써야 할 것이 이 퍼즐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유대인들이 직면한 문제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라, 단순히 율법을 범한 것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율법 법령을 ‘지키는 것’(2:26)과 율법을 ‘이행하는 것’(2:27)으로 바울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

이 이방인들이 이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가 격렬한 논쟁을 시작하는 입장일 뿐 아니라, 매우 다른 견지에서 로마서가 적대시하는 사상의 논거이다. 바로 이 구절의 문맥으로부터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데, 제안된 가설에 따르면 그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고린도전서 7장 19절처럼, 바울은 예리한 역설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 구절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율법 준수자’와 같은 모순 어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정당화했는가에 대한

빠짐없는 설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잘못일 수 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에의 암시와 로마서 나머지 부분을 통한 힌트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서 이 주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제안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주제는 바울의 율법관에 대한 질문의 핵심 가까이에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논의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샌더스(Sanders)와 레이제넨(Räsänen)은, 바울의 사고방식이 문제에서 해결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해답에서 곤궁으로’ 움직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에 따르면, 바울이 문제를 가지고 출발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대답을 얻었다고 하는 옛 견해는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바울의 새로운 경험으로 인해 그는 이성적인 ‘비판’ 같아 보이는 것으로 혹평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그 비판은 유대인을 손에 잡히는 어떤 것으로 고발하는, 일련의 산란하고 상반된 설명이라는 것이다. 내가 다른 곳에서 논증했듯이, 나는 이것을 매우 갈피를 못 잡게 하는 견해로 간주한다. 그러나 나도 바울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할 때, 어느 정도 유사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울은 여러 번 대체로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정말 지킨다고 말한다. 가장 명료한 구절은 (이미 언급된 고린도전서 7장 19절은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 13장 8절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더 중요한 것으로 세계의 다른 구절들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로마서 8장 4-9절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의 마음이다. 성령의 마음이 할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

둘째, 로마서 10장 4-11절이다. 여기서 가능한 것보다 더 빈틈없이 주해하지 않고, 우리는 바울이 또 다른 ‘새 언약’ 구절인 신명기 30장을, 어떤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믿을 때 그것(율법)에 대해 들었든 듣지 못했든, 또한 할례와 같은 면에서 그들이 율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로써 ‘율법

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해도 될 것 같다.

셋째, 동일하게 마음을 산란케 하는 표현으로 로마서 3장 27절의 ‘믿음의 법’(νόμου πίστεως)이 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만, 내가 점차 확신하는 것은 ‘율법’(νόμος)을 시종일관 유대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구절을 다음에 올 것에 대한 또 다른 힌트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는 것이다. 2장 26-29절, 3장 27절, 8장 4-9절, 10장 4-11절을 일렬로 배열해 놓으면, 우리가 구절들에서 점점 강해져가는(crescendo) 어떤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만약 이방인이라면, 유대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 중 하나인 것을 행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상 율법을 정말 이행하고 있다고 때로는 매우 애매하게(우리가 3장 27절은 어떻게 다루든, 애매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설명을 곁들여서 말한다. 이것으로 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왜 그는 이것을 말하는가?

나는 바울이 그것을 선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이 요점에서 그는 단언을 내리고, 새로운 신학적 가능성이 있는 (이전에 입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간다. (1) 그는 새 언약의 구성원들이 율법을 이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고, 예레미야 31장과 신명기 30장에 의해 지지된다. (2) 그는 또한 새 언약이 할례 받은 적이 없었고 받을 필요도 없는 진실한(bona-fide)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전체 논증이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존재했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범주를 약간 묻거나 제한된 의미에서 도출할 필요도, 그가 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상술된 것 이상으로 함축시킬 필요도 없이, 바울은 신학적 논리로 (3) 할례 받지 않은 이방 기독교인들이 에스겔이 말한 대로 사실상 ‘율법의 법령을 지키고 있다’고[2장 26절에 있는 ‘여겨질 것이

다’(λογισθήσεται)와 비교하라.] 주장할 수 있다. 이방인에 대한 언약 갱신과 축복 예언이 실현되었다. 수혜자들은 그들 존재만으로도 ‘율법을 이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루터의 율법의 제3용도(tertius usus legis)에 정말이지 대강 부합되는] 13장 8절의 윤리적 ‘이행’에 대한 문제는 아직 고려되지 않는다. 내 생각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행은 제일 먼저 신분 문제이다.

이(신분 문제)는 이 구절에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반복해서 정말 강조된다. 바울이 이 신학적 연역법을 논쟁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율법을 범하는가? 그렇다고 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이방 기독교인과 대비될 것이다. 이러한 대조는 또한 에스겔 36장과 비슷한 구절에서 바로 도출된다. 그 구절들에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한 모든 악한 생활 방식의 죄를 지은 추방된 유대인들은 돌아온 귀환자들과 대조된다. 이 귀환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재확립하실 것이다. 내가 제안하는 바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내지는 않았고 사실 어디에서도 자세히 풀어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게 논쟁의 표제가 되는, 육체적으로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낚아챈 ‘할례’와 같이, 바울은 할례를 했던 안했던(빌 3:3) 기독교인들을 ‘율법 준수자들’로 부른다. 이는 그들이 토라의 모든 계명들을 준수해서가 아니라, 8장 3절에서 그가 언급하듯이, 율법이 의도했으나 할 수 없었던 것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 사상의 언약적 문맥과 범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것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2장 25-29절에서 (1)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을 그들의 율법 위반 견지에서 이해해야 하고, (2) 문제 삼은 이방인들을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봐야 하고, (3) 전체 구절이 함축하는 바를 에스겔 36장과 유사 구절들과 조화시켜서 읽어야 하며, (4) 바울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귀속시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새 언약’ 주제에서도 도출된, 실패한 유대인식 ‘율법 지키기’에 반하여 논쟁적으로 배치된,

그러나 아직 충분히 산출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신학 범주로 간주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취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의 문제이다.

### 3. 율법 안에서 자랑하기: 2장 17-24절

위의 결론 중 첫 번째는 앞선 문단에 의해 즉시 토대가 훼손되지는 않는가? ‘그럴 수 없다’(μη γένοιτο). 우리가 로마서 2장의 중심부를 향해 거꾸로 작업하게 될 때, 마치 바울이 유대인들을 율법을 범해서가 아니라, 아니면 율법을 범한 것이 주된 이유가 아니라, 율법을 자랑하기에 책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그렇게나 많은 주석을 통해 특히 개신교 전통 내에서 우리에게 친숙하게 된 공로주의(legalism), 즉, ‘율법주의(nomism)’가 아닌가?<sup>6)</sup> 이것이, 그런 까닭에 율법을 범했다는 지적이 잘못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가?

아니다. 아니면 정확히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비판에는 이중 목적이 있다고 여러 곳에서 논증하였다. 우리가 본 대로, 또한 실제로 2장 17-24절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을 범하고 있다고 (2장 21-23절의 몇 가지 실례들과 함께) 그의 동료 유대인을 고소한다. 그러나 더 넓은 범주는 내가 ‘민족적 의(National Righteousness)’라고 기술한 데 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은 이 범주 내에서 관찰되어야 한다. ‘민족적 의’는 율법을 도덕적 자기 의에 올라서려는 선행의 사다리으로써 사용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는

---

6) 내가 개신교 전통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성공회 교인으로서 내가 공유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중 하나가 개신교 전통임을 덧붙이고 싶다. 동등하게 성공회 교인들도 1세기 유대인들과 같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내부로부터의 비판 원칙을 장려한다. 우리는 항상 개혁되는 공교회(ecclesia catholica semper reformanda)이거나 이기를 갈망한다.

율법을, 유대인에게 한정된 언약과 유대인 안에서만 회원 자격이 유지되게 하는 언약적 표지로 사용하려는 시도이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민족적 의’)이 이 논쟁적인 짧은 문단에서 바울의 논증을 몰아가고 있다.

유대인의 주장은 17-20절에서 시작된다. 이 주장을 바울이 과거에는 약간은 귀에 거슬리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므로, 이를 그가 매우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주장이 그의(혹은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그녀의) 도덕적 성취를 자랑하는 개별적인 유대인에게 해당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주장은 완전히 오해될 수 있다. 실제로 바울은 도덕적 성취의 부족이 그 자랑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논증할 것이다(2:23). 그 자랑은 오히려 이곳과 다른 곳에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한 분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과, ‘율법 준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을 드러낸다’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17-20절에서 바울이 나열하는 유대인의 지위 표지들과 특권 목록은, 마치 이렇다면 『솔로몬의 지혜』 즉, 『벤-시라』 도처에 나오는 암묵적인 자랑에 대한 암시를 읽는 것 같다. 즉, 지혜/토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기에, 이스라엘은 주위의 이방인들보다 항상 더 우월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이 문단의 시작 부분(εἰ δὲ σὺ Ἰουδαῖος ἐπινομάζῃ)은 2장 29절과 하나의 ‘주기’(κύκλος)를 만든다. 그리고 이는 앞항에서 도달되었던 결론을 강화할 뿐 아니라, 2장 17-24절이 2장 25-29절을 후반부로 가지는 전체 진술의 전반부로 의도되었음을 시사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선생들이 되기는커녕, 이방인들(즉,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심판관들이 될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문단을 읽는 바른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된다. 그의 동료 유대인들에 대해 바울이, 그들이 모두 부도덕하다거나 하물며 그들이 모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공로주의자들(legalists)이라고 책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참된, 최종적인 백성이라는 지위를 주

장하려 한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다.

에스겔 36장 20절이 함축되고 이사야 52장 5절이 인용되어, 중대한 주제인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라는 주제가 두드러진다고 나는 확신한다. 널리 보급된 가정과는 반대로, 제2 성전기 유대인의 대부분은 포로 상태가 실제로 끝났다고 믿지 않았다. 나와 몇몇 사람들은 이 점을 여러 곳에서 느헤미야 9장 36-37절, 에스라 9장 8-9절, CD(*Damascus Document*, 다메섹 문서, 공동체 규례) 1단 3-11줄, 토비트 14장 5-7절, 바룩 3장 6-8절, 마카비 2서 1장 27-29절과 같은 구절들에 근거하여 상당히 길게 논증했다.<sup>7)</sup> 그 논증이 적절하게 이해되지 않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논지의 주된 흐름을 한 번 더 간단히 진술하는 것은 가치 있어 보인다.

물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제2 성전기 유대 문서 어디를 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나머지에 있는 위대한 약속과 예언이 (바울에게 중요한 신명기 30장의 것들을 포함하여) 성취되었다는 제안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곳이 없다. 이스라엘은 적절한 자신의 위치로 회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땅의 통치자가 아니었고, 성전은 올바르게 재건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돌아오시지 않았고, 정의와 평화가 세계의 남은 부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에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와 같은 ‘포로 후기’ 예언자들은 일들이 여전히 초라한 형편에 있다고 매우 강하게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자신이 되었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했고, 여호와 의 더 진전된 위대한 행동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쿠파란 문서에는 이 점이 정확히 입증되어 있다. (예를 들어) CD에 나오는

---

7) N. T. Wright, “Romans and the Theology of Paul,” 269 이하에서 참고문헌 특히, 크니브(Knibb), 스콧(Scott), 스택(Steck)에 대한 참고문헌들과, 몬트리올의 콘코르디아 대학의 폴 가르네트(Paul Garnet) 박사가 쓴 저작 몇 개를 참고하라. 전체 주제로 인해 더 진지한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자기이해는 분명히 자기들 스스로를 실제적인 포로 귀환의 앞선 파수꾼으로 보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들이 최초의 은밀한 ‘귀환자들’로 여호와께서 최종적으로 행동하시는 때와 같은 상태에서 정당함이 입증될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예수님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 속에서 주요한 행동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신념의 거대한 여파가 1세기 60년대 중반에 갑자기 폭발했던 것은 참작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요점은, 이 사건을 생각하고 바라면서 그들이 단순히 여기저기 흩어진 많은 관계없어 보이는 사건들을 풍유적, 유형적으로 무작위로 발췌해서 출애굽과 같은 패턴이나 타입을 가져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전체 과거 줄거리의 맥락에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 줄거리가 약속된 목표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역사에 관심이 없는 상태로 살고 있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는 무게 있는 질문이 초시간적인 구원이나 윤리에만 주어지면서, 이러한 주제들이 먼 과거에서 상당히 임의적인 방식으로 취해진 관념들로 ‘도해(圖解)’되었다. 도리어 그들은 과거를 특별히 하나의 이야기로 읽었다. 그들 자신이 그 안의 등장인물인 진행 중인 이야기였고, 결말이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결말은 ‘포로로부터의 귀환’, ‘여호와와의 시온으로의 회귀’, ‘구원’, ‘죄 용서’, ‘새 언약’, ‘새 출애굽’, 그리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새 창조’와 ‘부활’로 다양하게 특징지을 수 있었다. 성경 문서에서 이 주제들 모두가 가장 탁월하게 집중된 곳들 중 하나는 확실히, 바울이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40-55장이다. 1세기 유대인들이 그 위대한 사건들 중 어떤 것이나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한 것으로 가정하는 어떤 이도, 내 생각에는 솔직히 그 본문을 이해하지 못했다(한 번 더, 쿵란은 그 규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외가 된다). 따라서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말하자면 본질적으로는 역사와 관계없는 ‘구원’을 나타내는 많은 다른 은유들 중에 하나라고 가정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 생각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 공유하고 있었던, 그의 서신들에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 세계관 전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매우 귀에 거슬리게 제안한 것처럼, 다소 사람 사울이 ‘해답’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지 않았다고 제안하는 것은 역사를 포기하고 공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가 오직 바울 영혼의 상태, 사후(死後) 구원 문제,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의미에서 칭의를 얻기 위한 시도와만 관계된다고 제안하거나, 주로 이런 문제들과 연관된다고 제안하는 것도 엄밀하게 말해 비역사적이다. 오히려 바울 당대 모든 진지한 유대인들이, 특히 바울이 속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리새파의 더욱 극단적인 진영에 속했던 사람들이<sup>8)</sup> 직면한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와 이스라엘이 당시에 경험하고 있던 암울한 운명 사이의 긴장이었다. 이스라엘은 메시야가 필요했고, 이스라엘은 구속이 필요했으며, 이스라엘은-단순히 죄 많은 개인들로 구성된 민족으로서가 아니라, ‘죄 용서’가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나타내는 속기(速記)였기 때문에-죄의 용서가 필요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경험 이후에, 그가 문제된 바를 잘 해결할 수만 있다면, 유대주의 내부 어딘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역행하여 논증할 필요는 없었다. 물론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에 스스로 눈멀어 있었던 유일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아마도 헤롯당 역시 그랬을 것이다.

이 문제의 일부에는, 모든 성경 선지서들과 남아 있는 대부분의

---

8)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특히 그들의 ‘열정’은 N. T. Wright, “Romans and the Theology of Paul,” 189-195를 참고문헌과 함께 참고하라. 나는 회심 전 바울이 그의 힐렐 학파 교사인 가말리엘에도 불구하고 삼마임 학파였다는 견해에 마음이 강하게 기운다.

포로 후기 문헌들에 인지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위반하고 교묘히 타협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실제 상태 사이의 더 나아간 긴장 상태가 있었다. 포로 귀환의 결과로 기대했던 큰 축복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죄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에스겔은 민족의 도덕적 소생을 약속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여러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불평한 대로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혹은 오히려 바울의 관점으로라면 그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2장 25-29절에서 간단히 진전되고 다른 곳에서 (특히 로마서 6-8장에서) 더 완전히 발전된 바울의 주장은 그것이-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의 성령을 통해-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어디에 남겨두었는가?

로마서 2장 17-24절에 따르면, 그것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민족적 자랑을 하는 상태가 되게 했고 그 자랑을 지지하는 데 토라를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토라 자체는 사실상 그 자랑이 무효가 되게 하였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취해진 고소는 모든 유대인이 도적질하고 간음을 행하고 신전들을 강탈한다는 게 아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이와 유사한 터무니없는 의기양양한 논박은 요점을 심히 비껴간 것이다. 요점은 만일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구속되었다면 이런 일은 하나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2장 22-23절의 고소는 개별적이지 않다. 이 구절이 단순히 모든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적어도 이방 세계에 보편적인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토라에 기초한 언약에 근거하여 ‘혜택 받은 민족 조항’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이 주장은 다음의 이유로 불가하다. 즉, 어떤 도적이나 간부(姦夫)나 신전 강도가 이스라엘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상태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포로 귀환은 적어도 기대되었던 방식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민족적 국민으로서

는 구속(救贖)되지 않았다.

로마서 2장 24절에 있는 이사야 52장 5절의 인용에 이 점이 요약되어 있다. 이사야 52장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국외 유랑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모독할 빌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다. 그 백성은 구속되어야 한다. 바울이 분명히 믿기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 점의 중요성이 항상 충분히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포로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아마도 그에게 있어서 부활의 주된 의의는 이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다면, 이는 바울이 이미 알고 있던 문제-이스라엘의 계속된 포로 상태를 토라를 더 힘써 준수하거나 여호와의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열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도 민족적 이스라엘이 현재 상태로 인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 앞으로 나갈 유일한 방법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마음의 은밀한 데 있지 할례의 표지에 있는 것이 아니며, 참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지 인간을 찬양함에 있지 않다. 이는 (최근에 주장되어 온 대로) 역사에서 플라톤주의로 전이시키는 것도, 단순히 물질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2장 17-24절에 있는 생각의 순서 내에서 토라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첫째,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랑’ 즉,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자랑을 세울만한 외견상 튼튼한 기초이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ἐπιναπαύη, 17절) 이 토라 기반이 공로주의자들의 공로의 사다리인 아니다. 토라 기반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현상이다. 둘째,

---

9) D. Boyarin, *A Radical Jew: Paul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를 “A Radical Jew: Paul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Reviews in Religion and Theology* 3 (1995), 15-23에 있는 나의 서평 논문과 함께 참고하라.

토라 기반은 지혜의 저장소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식과 진리의 규모”(20절)를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이 이러한 논평을 할 때 위선적이었다거나 빈정거렸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결국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7:12). 셋째로, 2장 17절의 ‘하나님 자랑’은 2장 23절에서 ‘율법 자랑’이 된다. 우리는 (예를 들어) 『벤-시라』 24장으로 이 점을 예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토라와 동일시되는 지혜가 인간 중에 살기 위해 어딘가를 찾고 있다가 이스라엘을 선택한다. 하지만 넷째로 율법은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이 약속한 지혜, 성결, 완전한 인간 생활을 가져올 수 없다. 바울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때로 언급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 가운데 숨겨진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대인 중에 숨겨진 아담이 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함으로써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백성이지만, 오직 ‘육신을 따라서’(9:5)만 그러하다.

그러므로 나는 2장 17-24절을 합리적으로 급진적이게 다시 읽기를 제안한다. 이 구절은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집합, 심지어 완전한 집합도 아니라 그 민족과 관계된다. 바울은 2장 17-20절에 있는 어떤 훌륭한 단어들도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3장 1-2절에서 이것들을 재차 단언한다.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는 민족으로 정확히 기술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민족의 소명에 충실한 사람만을, 그를 통해 여호와께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하실 사람만을 기술한다.

#### 4. 마음에 기록된: 2장 12-16절

‘왜냐하면’(γάρ)으로 시작하는 바울의 문장을 선행하는 문장에서

떼어내는 것이 성미에 맞지 않지만, 간결함과 명료함을 위해 우리가 이제 네스틀레-알란트 본문에서 2장 17절에 선행하는 문단인 2장 12-16절로 돌아가도 되겠다. 이 문단이 나에게서는 로마서 2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바울 논증에서 토라의 위치와 의미에 관해 여전히 대부분의 불확실함이 잠복해 있는 것 같은 곳이다.

사실, 이미 진행 중인 논증에 율법이 덧붙여짐으로써, 이 구절들이 2장 1-11절에서 나뉘게 된다. 여기까지 이 장은 어떤 이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다른 이들은 정죄함을 받는 일반적인 심판의 영상을 짜 맞추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이 그 영상에 율법을 도입시킨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모두가 심판 받을 것이나, 오직 자신들이 이 척도 위에 있었던 위치에 따라서만 받을 것이다.

먼저 이 문단에서 언급되는 칭의와 심판이 절대적으로 미래적임을 주목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이것은 현재의 칭의가 아니다. 바울은 3장에서 이 점에 도달할 것이다. 이 둘은 서로에게 경쟁 관계일 수 없다. 그들은 한통속이다. 로마서가 분명히 하듯, 현재의 칭의는 미래의 칭의를 진정으로 기대하게 한다. 또한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같이 로마서에서도, 믿음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칭의이다. 미래의 칭의 즉, 최후의 심판에서의 무죄 방면은 항상 살아진 삶의 완전함에 근거하여 일어난다(예, 롬 14:11-12; 고후 5:10).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결코 항상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이것이 바울의 칭의 교리에 관해 이해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문이 주제로 다룬다), 주석가들은 이 구절들을 어색하게 얼버무리고, 단조롭게 만들어서 모든 인간의 죄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루는 구절이 되게 한다.

12절에는 전형적인 바울의 일반 진술이 두 부분으로 제공된다. 율법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율법 없이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율법 하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 심판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13절에는 더욱 독특한 주장이 제시된다. 즉, 의롭다 함을 받을 자들은 (미래의 대 심판 때에, 즉 미래시제는 논리적 일뿐만 아니라 시간적이다) 율법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이 “율법을 행하는 자”들인가? 13절은 14절에서 즉시 추가적으로(γάρ) 설명된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의 일들을 하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이다.’ 나는 일부러 이 절의 중간에 나오는 ‘본성으로’(φύσει)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번역했다. 이 단어가 정확히 문제의 핵심으로써, 여기 바울 논증이라는 함선 전체의 진로를 바꾸는 작은 방향타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반복하건대, ‘율법을 이행하는’ 이 이방인들은 누구인가?

독자들은 내가 2장 25-29절에서의 유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같은 대답하기를 선호할 것이라고 추측할지도 모르겠다. 이 추측은 옳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논증의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한결 통상적인 그 대답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다음 결론과 같은 어떤 윤곽을 여전히 지지한다. 즉, 바울은 여기서 하나의 가상의 범주(그들이 이교도일 때 어쨌든 ‘본성으로 율법을 이행한’ 이방인)를 가정하는데, 이후에 그는 그런 범주는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어떤 이들은 바울이 여기서 엄격의 가면을 쓰고 보편적인 인간의 죄성을 설명하는 데서 잠깐 빠져나와서, 3장 19-20절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방인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로 그들의 양심과 본성에 맞게 생활하여 (이 어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나쁜 의미에서보다는 오히려) 가장 좋은 의미에서 ‘그들 자신에게 율법’임이 인식된다는 더욱 대담한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해왔다.

이러한 두 가지 대안 모두 1-3장이 단순히 죄의 보편성을 증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통상적인 신념과 관계된다. 바울은 “옳은 것을 행하는 이방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들은 유리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든지, “내가 위에

말한 바에도 불구하고, 또한 내가 아래에 말한 바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몇몇 이교도 이웃들이 철저히 예의 바른 도덕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부적절하다. 결정적인 단어는 다시 말하건대 ‘본성으로’이다.

주석가들의 다수는 ‘본성으로’(φύσει)를 이어지는 ‘그들이 거 율법의 것들을 행한다(면)’(τὰ τοῦ νόμου ποιῶσιν)과 함께 거론한다. 이 이방인들은 ‘율법의 일들을 본성으로 이행한다’. 그러나 단지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서신에 쓰인 이 단어의 다음 용례를 보면, 이렇게 거론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된다. 2장 27절에서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무할레인 것’(ἡ ἐκ φύσεως ἀκροβυστία)으로 기술된다. 여기서 ‘본성’은 분명히 이방인들이 말하자면 ‘태생적으로’ 그러한/가진 것을 지칭한다. 그들의 ‘본성’(φύσις), 즉 그들의 ‘타고난 상태’는 할례 받지 않음에 있다.<sup>10)</sup> 나는 이점이 ‘본성’을 선행하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들’(τὰ μὴ νόμον ἔχοντα)과 함께 거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이방인들에 대해 강조되는 바는 그들이 ‘율법 밖에 있는 열등한 종족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죄인들’(ἁμαρτωλοί, 비교, 갈 2:15)이다. ‘본성’적으로, 즉, 태생적으로, 그들은 언약 밖에 있지, 토라 안에 있지 않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토라의 일들을 이행한다’(14절).

10) 이 단어의 다른 용례 즉, 로마서 1장 26절, 11장 21절, 11장 24절(3회), 고린도전서 11장 14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 4장 8절, 에베소서 2장 3절을 바울 서신에서 비교해 봐도 좋다. 이 중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4절[이는 예를 들어 J. A. Fitzmyer, *Romans* (New York: Doubleday, 1993), 310에는, ‘본성으로 이행하다’를 지지하기 위해 인용되었다]만이 추상적인 ‘본성’을 직접적으로 가리킨다. 다른 모든 용례들은 사람들이 출생이나 종족에 의해 가지게 된 지위를 지칭한다. 게다가 바울은 “φύσει”를 항상 부사적이기보다는 형용사적으로 사용한다[P. Achtemeier, *Romans* (Atlanta: John Knox, 1985, 45)에도 이와 같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는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1 (Edinburgh: T & T Clark, 1975), 156, n. 7을 보라.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읽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는 어순과 관계가 있다. 만약 바울이 ‘본성으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을 의미했다면, 그는 왜 “τὰ φύσει μὴ νόμον ἔχοντα”라고 쓰지 않고 “φύσει”를 “τὰ μὴ νόμον ἔχοντα” 다음에 위치시켰는가? 우리도 전자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실상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와 같이, 수식하는 여격을 후치시키기보다 주격 분사를 사용해서 선행시킬 수 있다. 로마서 14장 1절의 ‘한편, 믿음 측면에서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τὸν δὲ ἀσθενοῦντα τῇ πίστει προσλαμβάνεσθε)에서 “τῇ πίστει”는 “προσλαμβάνεσθε”보다는 “τὸν δὲ ἀσθενοῦντα”와 함께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sup>11)</sup>

이 논증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달리 선택한 주요한 대안은 피츠마이어(Fitzmyer)의 주석에 분명하게 언급된 바가 될 것이다.<sup>12)</sup> 즉, “(‘일들의 통상적인, 자연적 이치’라는 의미로) ‘휘시스’(φύσις)의 지침에 따라 이방인들은 스스로 행동 규칙의 뼈대를 만들고, 적어도 모세 토라의 규정 중 몇 개를 안다.”이다. 이것이 물론 가능하기는 하지만, 내게는 2장 12-16절의 논증에 기여하는 정도가 훨씬 더 약해 보인다. 또한 이 장 전체로 볼 때에도, 논의 안에서 하나의 일치된 부분을 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담을 형성하게 된다. 바울이 물론 여담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심된다면, 논증을 더 단단하게 함께 묶어주는 의미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라고 나는 제안한다.

그러므로 나는 2장 13-14절이 위에 기술된 2장 25-29절과 매우 긴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해 추가되어야 할 요점이 두 가지 더 있다.

첫째, 우리는 여기에 기술된 사람들의 독특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11)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1, 1.157, n. 2에는 주격 분사 뒤에 종속적인 단어들인 쓰인 몇 용례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용례에서 종속적인 단어는 분사의 직접 목적어이다. 그러므로 이 용례들이 2장 14절과 직접적으로 비교되기는 어렵다.

12) J. A. Fitzmyer, *Romans*, 309-311, 여기서는 309.

것 같다. 2장 13절과 2장 14절을 함께 고려하면, 14절에 ‘율법을 이행하고 있다’고 기술된 사람들은 13절에 따르면 (우리가 여기서 현재가 아니라 미래 칭의를 다루고 있음을 한 번 더 기억할 때)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2장 13절의 ‘율법의 이행자들이 의롭다 함을 받을 것이다’(οἱ ποιηταὶ νόμου δικαιωθήσονται)와 2장 14절의 ‘이방인들이 …거 율법의 것들을 행한다(면)’(ἔθνη…τὰ τοῦ νόμου ποιῶσιν)을 함께 붙여놓을 때 분명해진다. 이곳과 다음으로 2장 26-27절에 언급된 ‘율법을 이행하는 것’은, 비록 미래이기는 하지만, 칭의 외에 다른 것과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왜 15b절(“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의 매우 이상한 구절에서 제안되는 것과 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일까? 하나의 가능한 대답이 다음과 같이 주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대답이 내 생각에는 내 입장을 강화시킨다.

바울은 이제 막, 율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 없이 심판받을 것이고 반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바로 하나의 예외에 직면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예외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정말로 기독교인 이방인들을 다루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점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율법’(아마도 유대인 율법)이 그들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율법’인 사람들이 만일 비기독교인들이라면, 바울은 12절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없이 심판 받을 것이라고 제안할 때, 무의미한 말을 한 것이 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체 모를 대상이다. 그들은 단순히 율법 없는 이방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이런저런 면에서 그들 마음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또한 어떤 면에서 그들이 ‘이행하고’ 있는 유대인 율법과 그들과의 관계가 충분히 애매하여, 언젠가 일어날 결말이 의심스럽다는 걱정을 그들이 여전히 하게 될 수 있다. 이리므로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반추해 보는 만큼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내적 갈등은 갖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상황은 단순히 12절의 것이 될 것이다.

2장 13절(“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의 경교로 거의 정확히 2장 23절(“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의 비난을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하여 논증을 진전시키고 보충해도 될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 기술된 사람들이 이장의 끝으로 향할수록 실제로 기독교인 이방인들-단순히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는 결론을 강력히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이 있다. 15a절이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직접적으로 암시한다는 것이 충분히 자주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고 항상 여겨진 것은 아니다. 너무 뒤얽혀서 주해 논문에서는 해명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이유 때문에, 바울이 언약 신학과 거의 혹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약 신학 안에는 물론 이 예레미야 본문이 매우 분명하게 포함된다. 하지만 한 번 더 이장의 나머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2장 17-29절의 문맥이 불가피하게 언약 및 포로 상태와 관계됨을 살펴보았다.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 있으면서, 언약 갱신을 바라고 있고, 유대인을 위한 것이면서 또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었을 언약 회원 지위를 움켜쥐려고 시도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전체 신학에

기초하여, 사실 그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되었다고, 또한 이방인들은 그 수혜자들 속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단언한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여전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놀랍고도 역설적인 의미에서, ‘율법의 법령들을 지키고 있다.’ 현 문단(2:12-16)에서, 그들은 율법이 ‘그들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바울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의 약속을 연상시키면서, 이 어구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르침 중 몇 개를 우연히 공유하게 된 이방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썼을 리는 거의 만무하다는 걸 깨닫는다. 바울은 나중에 훨씬 더 충분히 말할 것을 백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은밀히, 그리고 예변적(豫辨的)으로 암시하고 있다. 요컨대, 만일 2장 25-29절이, 서신 내에서, 기독교인 이방인들이 비록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율법을 이행하고 있다는 바울의 신념에 대한 더 충분히 설명의 전조였다면, 2장 13-14절은 거의 같은 요점에 대한 훨씬 더 이른 진술 같아 보인다.

거의 같지, 아주 같지는 않다. 바울은 단지 강조만을 위해 10절 이후에 요점들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2장의 두 반 토막(two halves) 사이에 흐르는 사고(思考)가 조리 있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는 약간 뒤로 물러나 이것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주시해야 한다.

대체로 진지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바울의 모든 견해의 전제는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세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문제는 이방인의 우상 숭배와 죄로 구성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들로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도 죄가 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심할 경우에 대비하여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수습했다. 해결책이 되었어야 할 민족이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있던 문제는 그 또한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의사가 병에게 굴복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사야 40-55장에 이미 보인대로) 이스라엘을 위해, 또한 다음으로 세상을 위해, 그들 스스로 혹은 서로에게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의사였다.

로마서 2장에 흐르는 사고의 흐름에는 이러한 신학적 윤곽이 얼마간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 2장 1절 이하의 일반적인 모두(冒頭) 진술은, 2장 17절의 공개된 비난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은밀한 방법이 아니라, 정확히 그것 즉, 보편적인 모두 진술로 간주되어야 한다. 모두 진술은 모든 인간 즉, 스스로 로마서 1장 18-32절의 혹평에서 면제된다고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이리므로 2장 17절에 있는 논증의 전환은 잘 알려진 아모스 2장 6절의 전환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고소를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가 불쾌하고 폭로적으로 자신들에게로 향하게 된 것을 발견한다. 로마서 2장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1) 모든 인간 즉,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도래할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2:1-11). (2) 토라는 이 심판의 공평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토라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면 아직 설명이 필요하지만, 출생 시에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의 일들을 이행하는’ 이상한 범주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놀랍게도 심판 때에 자신들의 정당함이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2:12-16). (3) 확실히 이스라엘은 보편적인 죄 문제에 대한 해법인가? 이스라엘은 창조주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오는 수단이지 않은가? 맞다. 그러나 아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어둠만을 가져왔다. 이방 세계를 밝혀야했던 민족이 스스로 이방 어둠에 굴복하고 말았고, 지금까지 그 문제를 완화시키던 토라는 대신에 문제를 증강시켜 버렸다(2:17-24). (4) 그럼에도 여호와와는 언약을 갱신하시고, 토라는 기묘한 새 성취를 얻는다. 이제 성령에 의해 창조된 어떤 이스라엘이 존재하여, 창조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2:25-29).

## 5.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과 로마서 2장의 율법에 대해 말할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일관성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은, 일단 사고의 실제적인 흐름과 기초가 되는 신학이 보이게 되면 실패로 끝난다. 내 생각에 최근 바울 학문의 고민 중 일부는, 가정된(그러나 항상 잘 파악되지는 않는) 더 오랜 정설의 공격자들과 가정된(그러나 항상 잘 이해되지는 않는) 비방자들에 대항하는 자칭 정설의 옹호자들 사이에 그릇된 양극화가 일어난 데 있다. 나라면 이 엄청난 분열의 한 편 또는 현재 널리 취해지는 것까지 다른 위치들에 선 내 동료들에게 로마서 2장을 단지 바울 신학의 틀 안 어디에도, 어떻게든 맞추기 어려운 구절로만 생각하지 말라고-혹은, 비록 로마서 2장이 문맥 안에서도 적절한 대우를 항상 받은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주해에서도-바울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위한 잠재적 시발점으로 간주해볼 수 있기를 권하고 싶다.

특히, 로마서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언약 신학을 소개받는다. 이 때문에, 마치 이신칭의의 사도가 잠시라도 유대인처럼 생각함으로써 위태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놀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의 신학이 종교적이거나 심리적인 경험을 단순히 경솔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그의 저작의 다른 곳과와 같이, 자신의 토대가 되는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성령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또한 그와 같이 온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다는 확신이 함축하는 바와 씨름하는 사도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고소는 ‘공로주의’나, 더 오랜 의미에 있어서의 ‘자기 의(self-righteousness)’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어딘가에 있을 어떤 표적을 맞출 것을 소망하며 단순히 임의적으로 허공에 탄환을 발사한 것도 아니었다. 그의 고소는 선지자적 비평 위에 수립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상되는 반박이 없는, 측량된,

사려 깊은 비평이었다. 다시 말해, 거의 어떤 유대인도, 분명히 회심 전 바울 자신까지라도, 이스라엘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구속이 필요한 채로 남아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안에서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율법’ 토론의 실타래를 준조적적 형태로 함께 당겨보면,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이다.

1. 율법, 즉 바울의 ‘노모스’(νόμος)는 유대인 율법이다. 이방인들은 태생적으로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2. 율법은 민족들과 대조하여 이스라엘을 규정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민족들의 빛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

3. 율법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준거를 정한다. 한편, 이방인들은 율법과 관계없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방인 중에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 따라 심판 받게 될 부류가 하나 있다. 이 부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비록 태생적으로 토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들은 ‘율법을 이행하고 있다’는 기묘한 위치에 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토라의 일’을 기록하셨기 때문이다.

4. 이스라엘은 자신이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민족들로부터 분리된다.

5. 자랑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 오직 이스라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에만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6. 최후의 심판과 연관되어 위에 언급된 이방인 범주가 한 번 더 인용되는데, 이번에는 민족적 이스라엘이 자신이 서 있다고 확신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다. 언약은 이미 갱신되어 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경우, 비록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언약의 수혜자들은 지금 ‘율법을 이행한다.’ 이 ‘이행’은 유대주의 내부에 있던 이행에 대한 생각들과 다른 체계인 것 같다. 이는 단순히 (루터교회의) 율법의 제3 용도도 아니다. 이러한 ‘이행’이 이전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것의 전례는 없고, 언약 갱신의 방식도 예상되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을…하나님께서 하셨다.”

7. 이제 3장이 나아갈 길은 분명하다. 십자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것의 직접적 결과로서 현재적 이신칭의가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계속 진행하여 이후에(8장) 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ἐν Χριστῷ)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κατάκριμα)가 없다고 선언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2장에서 원칙적으로 말한 것을 개괄하고 부풀린 것일 뿐이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에 큰 손상이 될 것이기에, 주석가들은 로마서 2장이 그러할 것이라고 보통 여겨지는 것에 반대하여, 로마서 2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에 유의하는 노고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러므로 로마서 2장은 양쪽 모두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바울이 단순히 조직적인 구원의 서정(ordō salutis)을 상술한다고 여기는 추측된 논증에 반하여, 서신에 조성된 실제적인 논증 내에서, 또한 바울의 전체 신학에 대한 잠재적 조직적인 설명에 있어서, 특히 그의 율법에 대한 신학적 숙고에서 또한 그러하다. 이런 식으로 갖추어지면,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식의 빈약한 최근의 몇몇 논쟁을 넘어서서 주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법 면에서 뒤엎혀 있지만 바울이 그의 독자들에게 남겨준, 온전히 균형 잡힌 신학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둘 다(both/and)’를 향해 선뜻 움직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침내 바울 신학을 발견했을 때 그것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적어도 사고방식을 빠르게 나타내자. 서신에 대해서도 그러하자. 그래서 그 사고방식과 서신이 매력적일 때에도 가르치기를 계속하게 하고, 영감을 줄 때에도 교육하기를 계속하게 하자.

<주요어>

law-breaking Jews, ethnic Israel, boasting in the Torah, law-keeping Gentiles, written on the heart, law, Torah, Romans 2, Pauline theology, Legalism, Covenantal nomism

<Key Words>

율법을 범한 유대인, 민족적 이스라엘, 토라 자랑, 율법을 이행하는 이방인, 마음에 새겨진, 율법, 토라, 로마서 2장, 바울 신학, 공로주의, 언약적 율법주의

\* 접수일 2011년 9월 14일, 수정일 2011년 9월 20일, 게재 확정일 2011년 9월 25일

## References

- Achtemeier, P., *Romans*, Atlanta: John Knox, 1985.
- Boyarin, D., *A Radical Jew: Paul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Romans 1*, Edinburgh: T & T Clark, 1975.
- Fitzmyer, J. A., *Romans*, New York: Doubleday, 1993.
- Wright, N. T., “A Radical Jew: Paul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Reviews in Religion and Theology* 3 (1995), 15-23.
- Wright, N. T., “Romans and the Theology of Paul,” E. H. Lovering, ed., *SBL 1992 Seminar Papers*, Atlanta: Scholars Press, 1992, 184-214.
- Wright, N. T., *The Climax of the Covenant: Christ and the Law in Pauline Theology*, Edinburgh and Minneapolis: T & T Clark and Fortress Press, 1991.
- Wright, N. T., *The New Testament and the People of God, Volume I of Christians Origins and the Questions of God*, London/Minneapolis: SPCK and Fortress Press, 1992.

<초록>

## 로마서 2장의 율법

N. T. 라이트

(세인트 앤드류 대학교 교수)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선지자적 비평 위에, 어떤 경우에도 반박이 예상되지 않는, 정교하고 사려 깊은 비평을 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로마서 2장은 무시되어 왔다. 로마서 전체나 적어도 로마서 1-8장에 흐르는 논지에 대한 강력한 의견 일치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치된 견해가 도전을 받는 곳에서도 그 도전이 아직 로마서 2장을 문맥적으로 산뜻하게 주해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논문에는 로마서 2장 25-29절, 17-24절, 12-16절이 다뤄지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바울 저작 전체를 아우르는 신학적 질문뿐 아니라 로마서 자체의 주석 측면에서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짧지만 치밀한 2장 25-29절의 의미, 특히 가리키는 대상과, 이 문단 내에서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 논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바울은 율법 위반 견지에서 유대인들을 비판한다. (2) 문제 삼은 이방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3) 전체 구절이 함축하는 바는 에스겔 36장 및 유사 구절들과 조화하여 읽는 것이 필요하다. (4) 바울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귀속시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새 언약’ 주제에서 도출된, 실패한 유대인식 ‘율법 지키기’에 반하여 논쟁적으로 배치된, 그러나 아직 충분히 산출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신학 범주로 간주해야 한다.

바로 앞 문단인 2장 17-24절에서 쏟아지는 비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라는 주제가 강조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적절한 자신의 위치로 회복되지 않았다. 모든 성경 선지서들과

남아 있는 대부분의 포로 후기 문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위반하고 교묘히 타협한 백성 이스라엘의 실제 상태 사이에 심화된 긴장 상태가 있었다. 비록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 실제로 일어났지만, 이러한 회복이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민족적 자랑을 하는 상태가 되게 했고 그 자랑을 지지하는 데 토라를 사용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2장 12-16절의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토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똑같이 도래할 심판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토라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고, 갖지 않은 사람들은 토라에 의해 심판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출생’ 때 율법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율법의 일들을 이행하는’ 이상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심판 때 자신들의 정당함이 입증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Abstract>

## The Law in Romans 2

Research Prof. N. T. Wright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in Scotland)

In Romans 2 Paul is likely to provide a measured, careful critique, built upon the prophetic critiques, and in any case not expecting rebuttal. Nevertheless, the chapter has been neglected not only because there has been a powerful consensus about the flow of the argument in Romans, or at least Romans 1-8, as a whole, but also because, even where the consensus has been challenged, the challenge has not so far penetrated as far

as a fresh contextual exegesis of the chapter. In this context, this paper deals with Romans 2:25-29, 17-24, and 12-16, expecting to make a vital contribution to some eventual solutions, both to the theological questions which surround all of Paul's writings and, of course, to the exegesis of Romans itself.

As regards the meaning, as especially the referent, of 2:25-29, and the role of the law within this dense little package, this study shows that in 2:25-29 Paul criticizes the Jews in terms of their lawbreaking, that the Gentiles in question should be seen as Gentile Christians, that the overtones of the whole passage need to be heard in tune with Ezekiel 36 and similar passages, and that the 'keeping of the law' which Paul ascribes as these Gentile Christians should be seen as a new sort of theological category, derived from the 'new covenant' theme, ranged polemically against the failed Jewish 'law-keeping,' but yet to be worked out full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critique in the previous passage(2:17-24), the theme of Israel's exile should be highlighted. Israel had not been restored to her proper position. Part of this problem, as all the biblical prophets and most of the surviving postexilic literature perceived, was the further tension between the vocation of Israel to be the true people of the creator God and the actual condition of Israel as a people deeply compromised with lawbreaking. Even though the renewal of Israel had indeed happened in Jesus Christ, and through his Spirit, it had not yet happened to ethnic Israel. It left ethnic Israel making an ethnic boast, and using the Torah to support that boast, while the Torah itself in fact rendered that boast null and void.

Then, on the basis of 2:12-16 this study can reach the conclusion firstly that Torah will not affect the fairness of coming judgment upon all humans, Jew and Gentile alike, since those who have it will be judged by it, and those who do not, will

not, and secondly that there is a strange category of people who ‘do the things of the law,’ even though ‘by birth’ they do not possess it, and will find themselves surprisingly vindicated at the judgment.

